



우리팀은요?

국내 전시사업의 메카, 「전시사업팀」

전 시사업팀은 우선 대내외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년 10월에 열리는 한국전자전, 즉 국내에서 열리는 대표적 전자·정보 전문전시회를 우리 전시사업팀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시사업팀의 인원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대외적으로 발이 넓고 통솔력을 겸비한 김규완 팀장이 팀업무 전체를 리드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기획력과 영어능력을 갖춘 강홍식 과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고 있다. 여기에 이현우 대리, 김용우 대리, 권명순씨 등 그 뒤를 탄탄하게 받치고 있어 그 어떤 조직보다도 탄탄한 조직력과 팀워크를 자랑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나 기업에서 해외시장개척이나 수출활로를 모색하는데 있어 각종 전시회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일의 양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대단하다.

본란에서는 우리 전시사업팀에서 담당하는 『2001 부산 디지털-전자전(KES-PUSAN 2001)』, 『2001 한국전자전(KES 2001)』, 『COMPUTEX Taipei 2001』, 『Shanghai-CeBITAsia 2001』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2001 부산 디지털-전자전(KES-PUSAN 2001)』은 본회가 올해 야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중의 하나로 오는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동

안 부산전시·컨벤션센터(PUEXCO) 개관기념 행사로 열리게 될 것이다.

이번 부산전자전에는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비롯, DVD, 블루투스, 영상 및 음향기기, 반도체, 전자부품 등 최신 첨단제품이 출품될 것으로 보여 디지털 정보사회를 한발짝 앞당기는 것은 물론 21세기 디지털 전자산업국으로 우뚝서기 위한 기반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번째로 본회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2001 한국전자전(KES 2001)』은 지난 1969년 국립공보관에서 첫발을 내디디면서 오늘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년의 한국전자전은 외국업체 120개사를 포함해 450개사 1,400부스 규모로 참가할 것으로 보이며, 전시장 면적만도 28,746㎡(8,696평)에 달해 우리나라 무역성장만큼이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무역상담액은 16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국가경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금년으로 32회째 맞는 한국전자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동에 소재해 있는 COEX에서 개최되며, ▲21세기 첨단 전자정보산업국의 기반구축 ▲전자산업 교역확대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최신 기술 및 시장정보 교환으로 신제품 개발촉진 ▲우수제품 보급을 통한 국민문화생활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회는 올해 한국전자전에 세계 우수기업의 CEO를 초빙하여 세계 IT시장의 주요 흐름에 대하여 연설하게 할 예정이고, 전자분야에 관련된 각종 세미나도 릴레이 형식으로 주최할 예정이어서 시장흐름을 읽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본회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가에서 개최되는 전자·정보관련 전시회중 10여개를 선정, 한국공동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 전시사업팀에서는 금년에 『COMPUTEXTaipei 2001』, 『Shanghai-CeBITAsia 2001』에 한국공동관으로 참가예정으로 현재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COMPUTEXTaipei 2001』은 오는 6월4일부터 8일까지 대만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Shanghai CeBITAsia 2001』은 오는 8월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상해 Everbright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상으로 본 전시사업팀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최근 전시·컨벤션산업을 자국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책적·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왜냐

하면 전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도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이고 나라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 국내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기저점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우리 기업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일수록 미구에 다가올 호경기를 대비해 우리 기업에서는 전시참가 등을 통해 보다 목표가 분명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 전시사업팀에서는 우선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는 보다 많은 외국업체와 외국바이어를 유치하여 우리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훌륭한 장을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고, 선진기업 제품의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게 하는데 역점을 뒀 지원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시사업팀 직원전체는 국내의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전시사업팀		「대표전화 : 553-0941	
		팩 스 : 563-7371」	
팀장	김 규 완	(교 240)	
과장	강 홍 식	(교 241)	
대리	이 현 우	(교 244)	
대리	김 용 우	(교 242)	
	권 명 순	(교 243)	